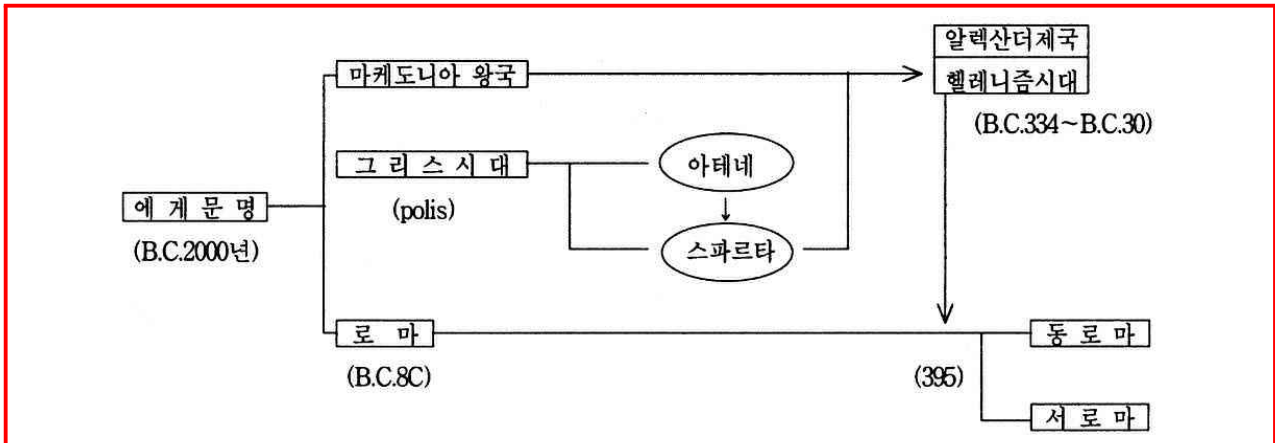


서양 고대 세계의 형성 - 그리스



[에게 문명(Aegean civilization)]

01. 성격

- 해양 청동기 문명
- 오리엔트 문명의 그리스 전달 → 그리스 문명의 모태

02. 전기 크레타 문명(= 미노아 문명)

- 기원전 2000년 경 크레타 섬의 크노소스 중심
- 평화적
- : 밝고 생동감 넘침
- 강력한 왕권
- 지중해 해상 무역으로 번성
- 크노소스 궁전(Knossos Palace)



<에게 문명>

03. 후기 미케네 문명

- 기원전 14세기 경 미케네인 남하 → 크레타 문명 파괴
- 미케네, 트로이, 티린스를 중심으로 도시 왕국 형성
- 상무적(尙武的) 문화 → 영웅 서사시 구전
- 기원전 12세기 경 ★도리스인의 침입으로 멸망 → 암흑시대 지속

서양 고대 세계의 형성 - 폴리스

[폴리스(Polis)의 성립과 발전]

01. 성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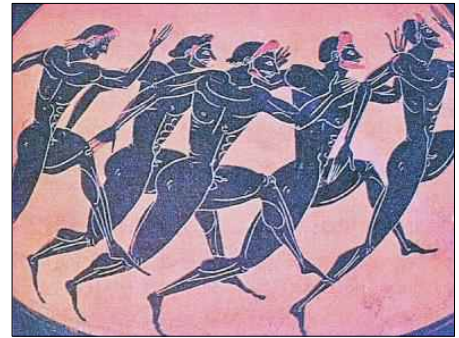
- 산지 지형, 토지 척박, 교통이 불편하여 중앙집권적 통일 국가 형성 곤란
↳ 촌락 공동체 내의 교역 증대, 방위 필요성의 증가 → 기원전 10세기경 도시 국가 형성

02. 구조

- 아크로폴리스(종교·군사적 거점, 신전 건축, 유사시 피난처)
- 아고라(광장, 집회·상거래 장소)

03. 특징

- 정치적으로 독립된 ★폐쇄적 공동체
- 그리스 인의 동족의식
- ★헬레네스(헬렌의 후손) 對 바르바로이(야만인)
- 동일한 언어, 도시 국가 간 동맹 결성
- 올림피아 제전 개최



<올림피아 제전>

04. 식민 활동

- 기원전 8세기 후반 ~ 기원전 6세기경 인구의 폭발적 증가와 경작지 부족으로 활발한 대외 진출
- 흑해, 지중해 연안에 식민 도시를 건설하고 지중해 해상권 장악

[아테네(Athens) 민주 정치의 성장]

01. 귀족 정치

- 귀족의 전쟁 비용 담당 → 정치적 실권 행사

02. 평민의 성장

- 상공업 발달 → 평민의 경제적 지위 신장
- ★평민 중장 보병이 군대의 주력 형성 → 정치적 권리를 요구하며 귀족과 대립

03. 솔론(Solon, BC. 640 ~ BC. 560)의 금권 정치

- ★조정자와 아르콘(집정관)으로 선임, ★재산 소유 정도를 반영하여 시민의 참정권 차등 분배(4등급)
- 귀족과 평민의 불만과 대립 고조

04. 페이시스트라토스(Peisistratos, BC. 600 ~ BC. 527)의 참주(僭主, Tyrannos) 정치

- 솔론의 국법 준수, 빈농 보호 조치
- 올림포스 신전과 아테네 신전 건축

서양 고대 세계의 형성 - 폴리스

[아테네(Athens) 민주 정치의 성장]

05. 클레이스테네스(Cleisthenes, BC. 570 ~ BC. 508)의 개혁

- 아테네 민주 정치의 기틀 마련
- 부족제의 개편
 - : 혈연 중심 → 거주지 중심
 - : 데모스(Demos)에 따라 30개 구역[시내(10), 해안(10), 내륙(10)]으로 구분
 - ↳ 각각 한 구역씩을 조합하여 총 세 구역을 각 부족에게 추천으로 할당
- ★500인 평의회 설치
- 참주(僭主) 출현을 막기 위해 ★도편 추방제[오스트라키스모스(Ostrakismos)] 실시



<도편 추방제>

06. 그리스 ~ 페르시아 전쟁(BC. 492 ~ BC. 479)

1)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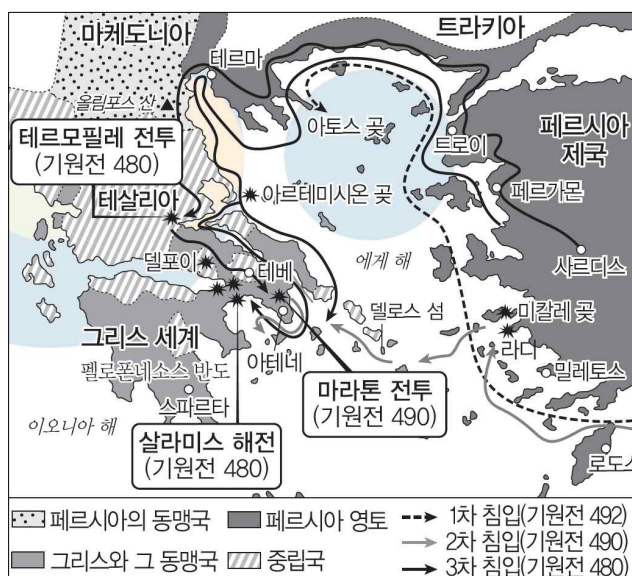
- 기원전 6세기 말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다리우스 1세의 팽창
 - : 아나톨리아(소아시아)의 그리스 식민 도시 압박 → 아테네의 그리스 식민 도시 지원

2) 경과

- 페르시아의 침입과 그리스 세계의 단결
 - : 마라톤 전투(BC. 490년)
 - : 테르모필레 전투(BC. 480년)
 - : 살라미스 해전(BC. 480년)
- 아테네, 스파르타 중심의 ★그리스 연합 승(勝)

3) 영향

- 아테네의 번영
 - : ★델로스 동맹(Delian League)의 맹주
 - : 강력한 해상 제국으로 발전
- 참전 시민들의 발언권 강화
 - : ★민주 정치의 발전



<그리스 - 페르시아 전쟁>

07. 페리클레스 시대(Perikles, BC. 495 ~ BC. 429)

- ★아테네 민주 정치의 전성기
- ★제한적 직접 민주 정치
 - : 모든 성년 남자 시민이 참여(여자, 거류 외국인, 노예 제외)하는 민회의 실질적 입법권 행사
- 민회에 참가하는 시민에게 ★공무 수당 지급(수당제)
- 특수직(장군 등)을 제외한 모든 관직과 배심원을 추천으로 임명(★추첨제)

서양 고대 세계의 형성 - 폴리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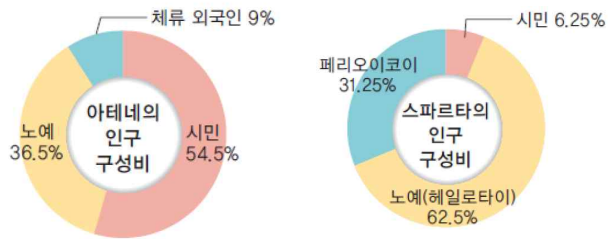
[스파르타(Sparta)]

01. 성립

- 소수의 ★도리스인(Dorians)이 원주민을 정복하고 폴리스 형성
- 농업 중심의 자급자족 사회

02. 강력한 군사 통치 체제

- ★군국주의적 귀족 정치
- 다수의 피지배층 제압
 - : 헤일로타이(예속 농민) → 농업 종사
 - : 페리오이코이(반자유민) → 상공업 종사
- 교육
 - : 모든 남자 시민에게 집단생활과 엄격한 군사 훈련 실시
 - : 아고게(agoge, 공교육 제도)
 - : 파이도노모스(paidonomos, 교사)
 - ↳ 용감한 전사 양성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인구 구성>

[폴리스의 쇠퇴]

01. 펠로폰네소스 전쟁(Peloponnesian War, BC. 431 ~ 404)

- 1) 배경
 - 폴리스 간 반목
 - : ★델로스 동맹(아테네 중심) 對 펠로폰네소스 동맹(스파르타 중심)
- 2) 전개
 - 전쟁 초기에 페리클레스 사망
 - ↳ 아테네 민주 정치의 중우(衆愚) 정치 전략
 - 펠로폰네소스 동맹의 승리로 델로스 동맹 해체
 - ★스파르타의 패권 장악

우리 정치는 소수의 독점을 배제하고 권력을 다수에게 평등하게 분배하기 때문에 민주 정치라 불린다. …… 그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비인간적 군사 훈련을 통해 용기를 함양하지만, 우리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그들과의 전쟁에서 결코 밀리지 않고 있다.
- 페리클레스의 전몰자 추도사

02. 스파르타 시대(BC. 404 ~ 371)

- ★공동체 의식 붕괴로 폴리스 간 반목과 갈등 지속
- 아테네, 코린트(Corinth), 아르고스(Argos) 등이 반(反) 스파르타 전선(코린트 동맹) 형성

03. 테베(Thebes) 시대(BC. 371 ~ 338)

- 테베의 스파르타 격파
- 마케도니아 필리포스 2세(BC. 기원전 359년 ~ BC. 336년)의 테베 정복

서양 고대 세계의 형성 - 폴리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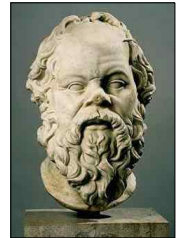
[그리스의 문화]

01. 특징

- 고전 문화, 인간 정신이 구현된 자유로운 시민 중심의 문화
- ★인간 중심적, 현세 긍정적, 합리적, 독창적

02. 철학

- 자연 철학
: 만물의 근원에 대한 탐구, ex) 탈레스(Thales), 피타고라스(Pythagoras)
- ★소피스트(Sophist)
: 직업 교사, 철학의 관심을 자연에서 인간으로 돌림, 진리의 상대성과 주관성 주장, 회의적 사고
- 소크라테스(Socrates)
: 소피스트에 맞서 보편적·절대적 진리 강조
- 플라톤(Plato)
: 이상 국가 구상
-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 여러 분야의 학문을 체계적으로 정리



<소크라테스>

03. 문학

- 호메로스, 『일리아스』·『오디세이아』 → 트로이 전쟁 주제, 영웅과 신들의 세계를 노래
- 헤시오도스, 『노동과 나날』(노동의 신성함 강조)·『신통기』(올림포스 신들의 계보 작성)

04. 연극

- 소포클레스(비극 작가), 아리스토파네스(희극 작가)

05. 역사

- 헤로도토스, 『역사』(그리스·페르시아 전쟁 서술)
- 투키디데스, 『역사』(펠로폰네소스 전쟁 서술)

06. 종교

- 다신교, 제우스를 비롯한 12신 숭배
- 인간적인 모습을 한 신(神) → 문학과 예술의 원천

07. 미술

- ★조화와 균형의 미 추구
- 신전 건축, 장식 조각 발달
: 파르테논 신전
: 아테나 여신상, 원반 던지는 사람(미론)



<파르테논 신전>



<아테나 여신상>

개념 Check

- ① 그리스 세계의 폴리스에서 ()는 종교적 거점이자 군사적 거점이었다.
- ② ()은 재산 정도에 따라 시민을 구분하고 참정권을 차등 분배하였다.
- ③ 클레이스테네스는 혈연 중심의 부족제를 () 중심의 부족제로 개편하고, 500인 평의회를 설치하였다.
- ④ 그리스-페르시아 전쟁에서 승리한 뒤 ()는 델로스 동맹의 맹주로 성장하였다.
- ⑤ 페리클레스 시대에 ()는 권한이 강화되어 실질적인 입법권을 행사하였다.
- ⑥ 아테네의 민주정은 여성, 거류 외국인, ()에게는 참정권이 부여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 ⑦ () 전쟁에서 승리한 스파르타는 그리스 세계의 패권을 차지하였다.
- ⑧ 진리의 상대성을 추구한 소피스트에 맞서 ()는 진리의 절대성을 주장하였다.

실전문제

01

다음 제도를 마련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8-9월 모의평가]

도편 투표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예비 투표를 한다. 실시하기로 가결되면, 아고라 주변에 널판에 두르고 열 개의 입구를 만든다. 그 입구를 통해서 사람들은 부족별로 들어와서 글을 새긴 면을 아래로 하여 자신의 도편을 내려놓는다. 고위 관리 9명과 500인 평의회가 이러한 절차를 주관한다.

- ① 부족제를 개편한다.
- ② 삼두 정치를 주도하였다.
- ③ 악티움 해전에서 승리하였다.
- ④ 펠로폰네소스 동맹을 결성하였다.
- ⑤ 특수직을 제외한 모든 관직에 추천제를 도입하였다.

02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7-6월 모의평가]

기원전 371년은 (가)(으)로서는 치욕의 해였다. 무적을 자랑하던 중갑병 부대가 레욱트라 전투에서 테베군에 대패하여 전사의 절반 이상을 잃었다. 그리스-페르시아 전쟁에서 아테네와 더불어 주역을 담당하였고, 펠레폰네소스 동맹의 맹주로서 그리스 세계를 제패하였던 나라가 왜 쇠락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을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시민 수의 부족을 쇠퇴의 결정적 요인으로 지적하였다.

- ① 12표법을 제정하였다.
- ② 파르테논 신전을 건축하였다.
- ③ 스파르타쿠스 난을 진압하였다.
- ④ 도리스 인이 원주민을 정복하고 세웠다.
- ⑤ 투르·푸아티에 전투에서 이슬람 세력을 격퇴하였다.



▶ 아테네의 정치 변화

왕정



귀족 정치



금권 정치



참주 정치



민주 정치



그리스 · 페르시아 전쟁



페리클레스 시대



펠로폰네소스 전쟁

- 중장보병의 발언권 강화(= 유산 시민)
- 솔론의 개혁
: 재산 소유 정도에 따라 참정권의 차등 분배 주장
- 페이시스트라토스의 참주 정치
- 클레이스테네스
: 도편 추방제, 부족제의 개편, 500인 평의회 설치
- 그리스 연합 對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 지중해 해상권 쟁탈
- 동방의 전제 정치에 대한 그리스 민주 정치의 승(勝)
- 제한적 직접 민주 정치의 완성
- 공직 관리와 재판관 선출의 추천제와 윤번제
- 참정권의 제한(여자, 노예, 외국인 등 제외)
- 노예를 기반으로 한 민주 정치
- 델로스 동맹 對 펠로폰네소스 동맹 → 폴리스 쇠퇴

▶ 아테네의 스피르티

	아테네	스피르티
위치	해안	내륙
산업	해상 교역	농업 중심
군대	해군 위주	육군 위주
정치	민주정치	군국주의
노예	소수 개인 노예	다수 국유 노예
동맹	델로스 동맹	펠로폰네소스 동맹

▶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원인(『수능 특강』, p.71)

아테네인과 펠로폰네소스인은 에우보이아(euboia) 점령 이후에 체결된 30년 평화 조약을 깨고 전쟁을 벌였다. 그들이 평화 조약을 깬 이유와 관련하여 나는 이미 그들이 내세우는 불만의 원인과 논쟁을 기록하였으므로, 누구도 그렇게 큰 전쟁이 왜 그리스인들 사이에서 발발했는지 물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 비록 별로 언급된 바 없으나, 나는 전쟁이 발발한 가장 진실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고 생각한다. 아테네가 강력해지자 스파르타가 두려움을 갖게 되었고, 그 결과 스파르타인들이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었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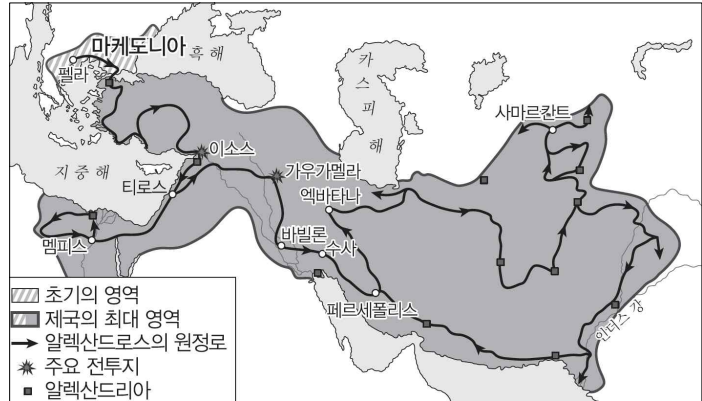
- 투키디데스, 『역사』

알렉산드로스 제국과 헬레니즘 문화

[알렉산드로스 제국(BC. 334 ~ BC. 31)]

01. 성립

- 마케도니아의 성장
- 필리포스 2세 때 페르시아 원정 계획
- ★알렉산드로스의 동방 원정(BC. 334)
: 이소스(Issus) 전투로 페르시아 정복, 이집트 점령, 인더스 강 유역 진출
-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에 걸친 제국 건설



<알렉산드로스 제국>

02. 발전

- 동방(페르시아)의 전제 군주제 도입
- ★동·서 융합 정책 추진
: ★알렉산드리아 건설 → 그리스 인의 이주, 페르시아 인과 결혼 장려
- 무세이온(학문의 전당 겸 도서관) 건설

03. 분열

- 알렉산드로스 사후(BC. 323) 마케도니아, 시리아, 이집트로 분열
- ★악티움 해전(BC. 31) → 로마의 이집트 정복

[헬레니즘 문화]

01. 세계화한 그리스 문화

- 그리스 문화 기초 + 오리엔트 문화 → 동·서 문화 융합
- 폴리스의 애국주의 탈피 → ★개인주의, 세계 시민주의

02. 철학

- ★스토아학과(금욕주의, 이성적인 삶 추구)
- ★에피쿠로스학과(정신적 쾌락주의, 마음의 안정과 만족 추구) → 미술에 영향

03. 자연 과학

- 에우클레이데스(= 유클리드, 기하학), 아르키메데스(부력의 원리), 아리스타르코스(태양 중심설)
- 지구의 자오선 측정, 의학(인체 해부학) 발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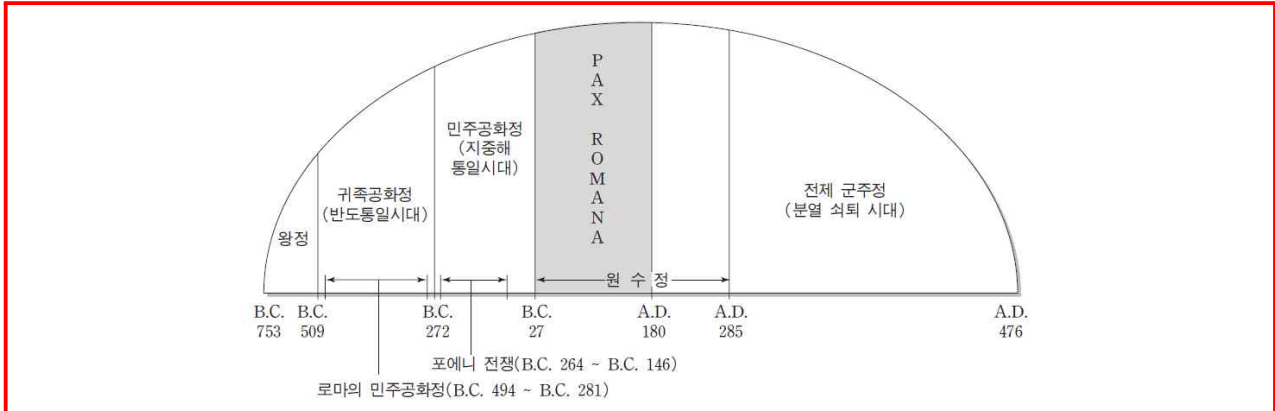
04. 예술

- ★사실적·관능적 → ‘밀로스 섬의 비너스 상’, ‘라오콘 군상’, ‘니케 상’
- ★인도의 간다라 미술 성립에 영향



<라오콘 군상>

로마의 발전



[로마(Rome)의 공화정]

01. 건국

- 기원전 8세기 경 라틴 인 주도
- 테베레(Tevere) 강 하류에 도시 국가 건설



<로물루스와 레무스>

02. 발전

1) 왕정

- 건국 초기
- : 에트루리아(現 토스카나) 출신 왕의 지배

2) 기원전 6세기 말 귀족들이 왕을 몰아내고 공화정 수립

- 원로원과 집정관의 정치권력 독점
- : 원로원(Senatus) → 최고 의결 기관, 실질적 지배 기구
- : 집정관(Consul) → 최고 행정관, 원로원에서 2명 선출, 임기 1년

3) ★평민권의 성장(BC. 5C ~ BC. 3C)

- 상공업의 발달 → ★평민 중장 보병으로 군대의 주력 담당 → 정치적 권리 요구
- 대내적으로 정치 투쟁(공화정의 민주화), 대외적으로 정복 사업 진행

법률	내용
제1차 성산 사건(BC. 494)	• 평민 군대가 성산(聖山, 몬스사케르)에 모여 농성 → 귀족들의 평민 요구 수용
호민관 설치(BC. 494)	• 평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평민 중에서 선출한 관직(정원 10명, 임기 1년)
평민회 설치(BC. 472)	• 평민들의 권익 단체
12표법(BC. 450)	• 로마 최초의 성문법, 귀족의 자의적인 법 집행 방지
리키니우스 법(BC. 367)	• 2명의 집정관 중 1명은 평민에서 선출
호르텐시우스 법(BC. 287)	• 평민회의 결의가 원로원의 동의 없이 국법으로 인정
	• 평민회의 정식 회의 인정 • 평민이 법률상 귀족과 동등한 권리 획득

로마의 발전

[로마의 발전과 사회적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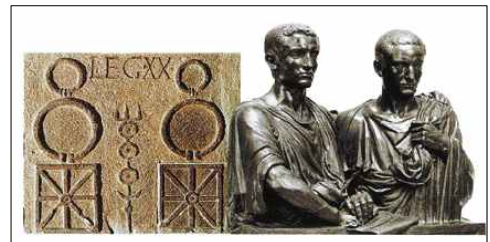
01. 로마의 팽창

- 1) 기원전 3세기 이탈리아 반도 통일(BC. 272)
 - 중장보병 주도
- 2) ★포에니 전쟁(BC. 264 ~ BC. 146)
 - 카르타고(Carthage)와 지중해 해상권 경쟁
 - 총 3차례에 걸친 전쟁에서 로마의 승리 → ★서지중해 패권 장악
- 3) 동방으로 세력 확대
 - 마케도니아와 그리스 정벌, 소아시아로 세력을 확대하여 지중해 대부분 지배
 - 정복지(★속주)에 총독을 파견하여 통치

02. 포에니 전쟁 이후 공화정의 변화(공화정의 위기)

- 1) 사회·경제적 변화
 - 자영농의 몰락
 - : 대외 팽창 과정에서 장기간의 전쟁으로 토지 황폐화
 - : 속주에서의 값싼 곡물과 노예 유입
 - : 몰락 농민의 로마 집중과 군사력의 약화
 - 유력자들이 노예 노동을 이용한 대농장(★라티퐁디움) 경영 확대 → 신(新) 귀족층 대두
 - 헬레니즘 문화 유입 → 향락적 사치 풍조 유행

- 2)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BC. 133 ~ BC. 121)
 - 티베리우스 그라쿠스와 가이우스 그라쿠스
 - : 농지법 제정 → ★유력자들의 대토지 점유 제한
 - : 곡물법 제정 → 빈민들에게 값싼 곡물 제공
 - 원로원과 대토지 소유자들의 반대로 실패
 - : 귀족파(별족파)와 평민파의 권력 투쟁으로 정치적 혼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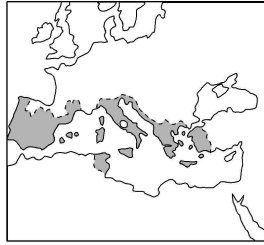
<그라쿠스 형제>

- 3) ★스파르타쿠스의 난(BC. 73)
 - 노예 반란, 내란 상태 발발 → 크라수스(Marcus Licinius Crassus, BC. 115 ~ BC. 53)의 진압
- 4) 군인 정치가의 등장과 ★삼두 정치의 전개
 - 제1차 삼두 정치(카이사르·폼페이우스·크라수스, BC. 60 ~ BC. 45)
 - 제2차 삼두 정치(옥타비아누스·안토니우스·레피두스, BC. 43 ~ BC. 31)
 - : ★악티움 해전(BC. 31), 옥타비아누스의 안토니우스 격파 → 원수정(元帥政, ★프린키파투스) 성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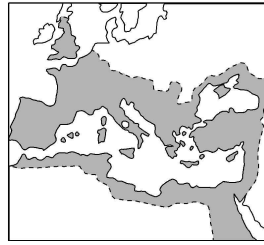
로마의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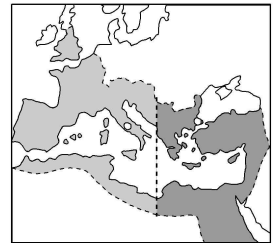
기원전 3세기 초



포에니 전쟁 이후



기원전 2세기 이후



동·서 로마의 분열

[로마 제정의 성립과 쇠퇴]

01. 제정의 시작과 평화 시대

- ★**옥타비아누스**(재위 BC. 27 ~ AD. 14)
 - : 악티움 해전 승리 → ★**프린킵스(제1 시민)** 자처
 - : 원로원에서 아우구스투스(존엄한 자)의 칭호 획득(BC. 27)
 - ↳ 군대 통수권과 재정 관리권 장악
 - : **종신 집정관의 권한(BC. 19)** → **대제사장(BC. 12)**
- 로마의 평화 시대(Pax Romana, BC. 27 ~ AD. 180)
 - : 옥타비아누스 이후 → 네르바 ~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5현제 시대
 - : 정치적 안정, 최대 영토(트라야누스 황제, 재위 98 ~ 117) 확보
 - : 도로·화폐·도량형 정비, 상공업 발달, 도시 중심의 경제적 번영, 동서 교역 발달

02. 제국의 쇠망

- 군인 황제 시대(235 ~ 284)
 - 이민족(게르만, 사산왕조 페르시아)의 침입과 속주의 반란
 - 속주 군단 사령관의 황제 추대로 군대의 정치 개입
 - 전쟁과 약탈 → 농촌 피해, 도시와 상공업 쇠퇴, 중산층 자유 시민 몰락
 - 콜로누스(colonus, 부자유 소작인)를 통해 토지를 경작하는 ★**콜로나투스(colonatus) 제도** 성행
- 중흥 노력
 -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재위 284 ~ 305)
 - : ★**군인 황제 시대의 혼란 수습**, 전제 군주제 도입, 4분 체제(정제·부제 각 2인), 군대 장악
 - ★**콘스탄티누스 황제**(재위 306 ~ 337)
 - : **크리스토교 공인(★밀라노 칙령, 313)**, ★**콘스탄티노폴리스 천도(330)**, 군주제 강화
 - 테오도시우스 황제(재위 379 ~ 395)
 - : ★**크리스토교의 국교 인정(392)**, 사후 동로마와 서로마 제국으로 분열(395)
- 멸망
 - 서로마 제국 → 수도 로마, 게르만 용병 대장 오도아케르의 침입으로 멸망(476)
 - 동로마 제국 → 수도 콘스탄티노폴리스, 오스만 튀르크 메흐메트 2세의 침입으로 멸망(1453)

로마의 문화

01. 특징

- 그리스 문화 + 헬레니즘 문화 + 로마 문화 → ★서양 고전 문화의 완성
- 법률, 도시 설계, 토목, 건축 등 ★실용적인 문화 발달
- 학문, 예술은 ★그리스·헬레니즘 문화 모방

- 모든 고대의 역사는 호수로 흘러 들어가는 강물처럼 로마의 역사 속으로 들어갔으며, 모든 근대의 역사는 로마로부터 다시 흘러 나왔다. - 랑케
-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 로마는 세 번 세계를 통일하였다. 최초는 무력으로, 다음은 종교로, 그리고 마지막은 법률로 - 예링
- 토인비는 로마 문화를 그리스 문화와 합쳐 '헬레닉(Hellenic) 문명' 이라 하였다.

02. 법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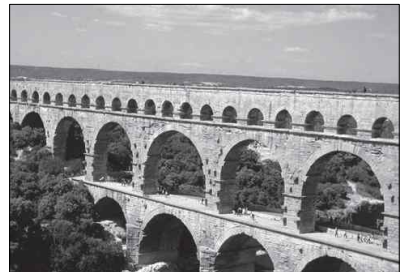
- 12표법(관습법의 성문화) → 시민법(로마 시민에게 적용) → 만민법(제국 안의 모든 민족에게 적용)
→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로마법 대전(Corpus Juris Civilis)』, 529 ~ 565)으로 집대성

03. 토목과 건축



<콜로세움>

- 물자 교류, 신속한 군사적 행동
- 정복지 곳곳에 도시 건설과 도로 연결[★아피아 가도(로마 ~ 카푸아)]
- 콜로세움(원형 경기장), 판테온(신전), 개선문
- 공공목욕탕, 바실리카(집회소), 수도 시설 마련(수도교)



<수도교>

04. 철학과 역사

- 철학
: 스토아(Stoa) 철학이 상류층에서 유행
- 역사
: 『로마사』(리비우스), 『게르마니아』(타키투스), 『갈리아 전기』(카이사르), 『영웅전』(플루타르코스)

05. 문학

- 그리스의 영향
- 산문
: 키케로(BC. 106 ~ BC. 43)의 『국가론(De republica)』, 『법률론』, 『의무론』
- 서사시
: 베르길리우스(BC. 70 ~ BC. 19)의 『아이네이스(Aeneis)』

06. 자연 과학

-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天動說, = 지구중심설)

크리스트교의 성립과 전파

01. 성립

- 아우구스투스 시대 로마의 속주가 된 유대인의 구세주 출현 고대 → 예수의 등장
- : 유대교의 선민사상과 형식적 율법주의 배경, 보편적 사랑과 평등 설교
- : 예수 처형과 가르침 확산

02. 전파

- 베드로, 바울로의 활약으로 로마 제국 내 확산
- 『신약성서』(그리스어) 편찬



<카타콤>

03. 탄압

- 네로 ~ 디오클레티아누스
- ★황제 숭배 거부, 군대 복무 거부로 로마 제국의 박해
- : 카타콤(catacomb)에서 예배를 통해 교세 확장

04. 로마 제국의 공인과 교리 확립

- ★밀라노 칙령(313)
- : 콘스탄티누스 황제와 리키니우스 황제의 협의, 크리스트교 공인
- ★니케아 공의회(325)
- :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소집, 최초 종교 회의
- : 아타나시우스파의 삼위일체설을 정통 교리로 채택하고 아리우스파를 이단으로 규정
- : 교회 명칭 → 가톨릭교회

▶교리 확립

아타나시우스는 ‘예수는 인간인 동시에 완전한 신으로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 일체’를 주장하였다. 이에 반해 아리우스는 ‘아버지인 신과 아들인 예수는 동일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결국,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규정하였다. 이때 추방된 아리우스파는 게르만족에게 전파되었다. 또한 431년 에페소스 공의회에서 이단으로 선고된 네스토리우스파는 사산왕조 페르시아에 전파되었다.

- 테오도시우스 황제(재위 379 ~ 395)의 ★국교 선포(392)
- 교리 체계화
- : 아우구스티누스(354 ~ 430)의 『신국론』 → 크리스트교적 세계관 확립

05. 의의

- 그리스·로마 문화와 함께 유럽 문화의 중요한 토대 형성

▶유대교와 크리스트교

유대교와 크리스트교는 모두 여호와를 숭배하는 일신교이다. 유대교에서 신의 구제는 이스라엘인에게만 내려진다고 믿는다. 그러나 크리스트교는 신을 최후의 심판자로서보다는 절대적 사랑을 베푸는 자로 인식하고 배타적인 선민사상을 극복하여 모든 인간이 신 앞에서 평등하다고 가르쳤다. 이것이 크리스트교가 세계 종교로 발전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



▶ 공화정 말기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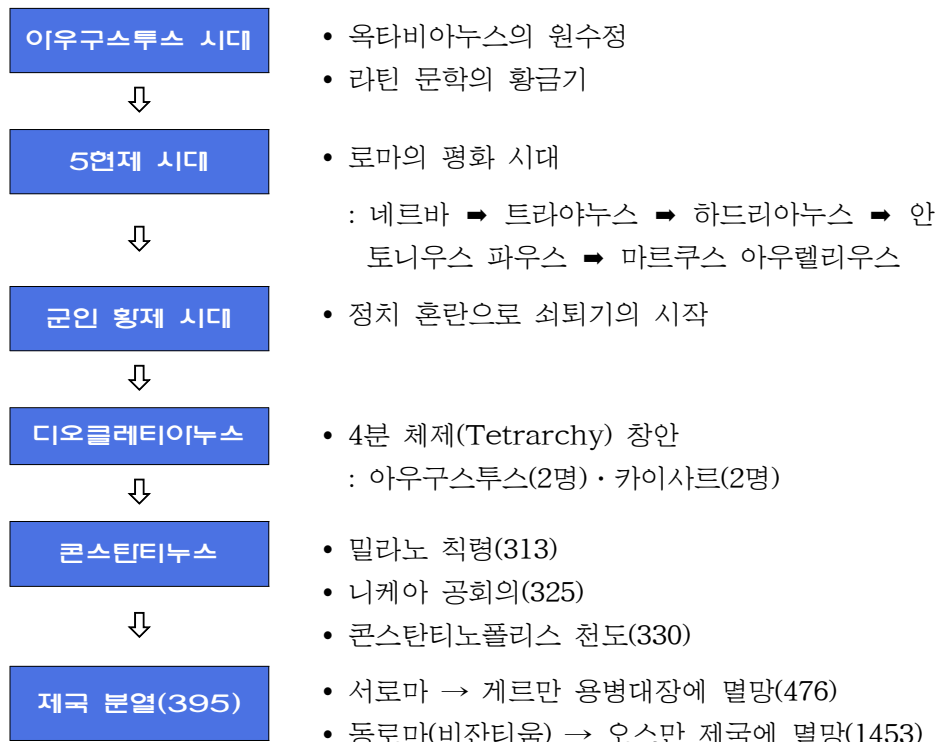
▶ 제정의 발전과 쇠퇴

▣ 제정 말기의 변동

- 화폐 경제의 쇠퇴
- 중산 시민 몰락
- 콜로나투스

▣ 밀라노 칙령

cf) 중국 5호 16국 시대 (316 ~ 439)



개념 Check

- ① 알렉산드로스는 정복지 곳곳에 자신의 이름을 딴 ()라는 도시를 건설하였다.
- ② 헬레니즘 미술은 북인도까지 전파되어 () 양식의 성립에 영향을 주었다.
- ③ 로마의 공화정은 집정관, (), 민회 등으로 이루어진 정치 체제였다.
- ④ 로마는 카르타고와의 세 차례에 걸친 () 전쟁에서 승리하여 서지중해의 패권을 장악하였다.
- ⑤ 자영농이 몰락하고 () 경영이 확대되자, 그라쿠스 형제는 자영농 육성을 위한 개혁을 실시하였다.
- ⑥ 옥타비아누스는 원로원으로부터 '존엄한 자'라는 의미의 ()라는 칭호를 부여받았다.
- ⑦ 로마 제정 후반기에 ()에게 토지를 경작하게 하는 콜로나투스제가 운영되었다.
- ⑧ () 황제는 크리스티교를 공인하고, 수도를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옮기는 등 제국의 부흥을 꾀하였다.
- ⑨ 로마 문화는 (), 토목, 건축 등 실용적인 분야가 발달하였다.
- ⑩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 이르러 ()는 로마의 국교가 되었다.

실전문제

01

밑줄 친 '자유의 수호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7-수능]

우리는 동방으로부터 들려온 소식에 분개하였다. 이집트 여왕은 줄곧 우리의 권력을 탐하여 왔다. 사실 여왕의 배후에는 안토니우스가 있었다. 만일 안토니우스가 권좌를 차지하였다면, 우리의 도시들은 여왕의 수중에 떨어지고 모든 권력은 이집트로 넘어갔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자유의 수호자가 나타나 저들을 격파하고 분열을 종식시켰다.

-카시우스 디오-

- ①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였다.
- ② 호르텐시우스법을 제정하였다.
- ③ 제국의 4분할 통치를 실시하였다.
- ④ 스파르타쿠스의 난을 진압하였다.
- ⑤ 프린켄스(제1 시민)를 자처하였다.

02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7-9월 모의평가]



그림은 (가) 이가 밀비우스 다리에서 막센티우스와 싸우는 장면입니다. 십자가가 보이고 하늘에서 천사들이 그를 돕고 있습니다. 전투에서 승리한 다음 해에 (가) 은/는 크리스티교를 공인하였습니다.



- ① 카르타고를 제압하였다.
- ② 호민관 제도를 도입하였다.
- ③ 악티움 해전에서 승리하였다.
- ④ 크리스티교를 국교로 삼았다.
- ⑤ 콘스탄티노폴리스를 건설하였다.



시대	시대 특징	
	정치·경제	시위·문화
그리스	① 폐쇄적 공동체인 폴리스 발달 : 아크로폴리스(성채·신전), 아고라(광장) ② 활발한 해외 식민 활동 : 중장보병의 지위 신장, 솔론의 개혁 ③ 아테네의 민주 정치(클레이스테네스의 개혁★) 스파르타의 군국주의★ ④ 그리스·페르시아 전쟁(BC. 492 ~ 479)★★ : 아케메네스 조 페르시아의 침입 격퇴·승리 : 아테네 민주정의 전성기, 페리클레스 시대 ⑥ 펠로폰네소스 전쟁(BC. 431 ~ 404)★ : 델로스 동맹 對 펠로폰네소스 동맹(勝) ⑦ 테베 시대	① 동족 의식 : 헬레네스 : 올림피아 제전, 도시 간 동맹 ② 고전 문화, 인간 중심적 문화★ ③ 호메로스, 『일리아스』·『오디세이아』★ 각종 비극과 희극 ④ 파르테논 신전 ⑤ 아테나 여신상, 원반 던지는 사람 ⑥ 자연철학 ⑦ 소피스트(진리의 상대주의) 소크라테스(진리의 절대주의) ⑧ 헤로도토스의 『페르시아 전쟁사』★
헬레니즘	① 알렉산드로스 제국 ②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정복, 이집트 점령, 인더스 강 유역까지 진출★ ③ 오리엔트의 전제 군주정 수용 ④ 알렉산드리아 건설 → 그리스인 이주 ⑤ 동·서 융합 정책 → 결혼 정책★	① 개인주의, 세계 시민주의 사상★ ② 동·서 융합 문화★ ③ 스토아학파(금욕), 에피쿠로스학파(쾌락)★ ④ 사실적 미, 관능적 미 강조 : 라오콘 군상★, 비너스 상 ⑤ 간다라 미술에 영향★
로마	① 왕정 → 귀족 공화정(원로원, 집정관) ② 중장 보병으로 활약한 평민의 발언권 신장 → 공화정의 민주화 : 호민관 → 평민회 → 12표 법 → 리키니우스 법 → 호르텐시우스 법★ : 이탈리아 반도 통일(BC. 272)★ : 포에니 전쟁(BC. 264 ~ BC. 146) 이후 공화정의 위기 → 라티퐁디움 성행과 자영농의 몰락★ ③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BC. 133 ~) 실패 → 별족파와 평민파의 대립 격화 ④ 스파르타쿠스의 난(BC. 73)★★ → 삼두 정치(BC. 60 ~ BC. 31) : 제1차 → 카이사르 독재 → 제2차 → 악티움 해전(BC. 31) 이후 제정 성립★ ⑤ 옥타비아누스(아우구스투스) → 5현제 시대(Pax Romana), 트라야누스 때 최대 영토 ⑥ 군인 황제 시대(235 ~ 284) → 정치적 혼란, 제국의 쇠퇴, 콜로니투스 제도 확산★ ⑦ 증흥 노력 : 디오클레티아누스 - 군대 통수권 장악, 전제 군주제 확립, 4분 통치(각 2명의 황제·부황제) : 콘스탄티누스 - 크리스티교 공인(313), 니케아 공의회(325), 콘스탄티노폴리스 천도(330) : 테오도시우스(재위 379 ~ 395) - 크리스티교 국교 선포(392) ⑧ 동·서로마의 분열(395) → 서로마는 게르만에 멸망(476), 동로마는 오스만에 멸망(1453) ⑨ 문화 i) 그리스·헬레니즘 양식 모방 ii) 보편적 세계 문화 iii) 법률, 토목, 도로, 건축 등 실용적 문화 발달★ : 12표법 → 시민법 → 만민법 → 로마법 대전 : 아피아 가도, 콜로세움(원형 경기장), 판테온(신전), 수도교, 개선문, 공중목욕탕 등 iv) 플루타르코스(『영웅전』), 카이사르(『갈리아전기』), 리비우스(『로마사』) v) 상류층에 스토아 철학 유행★ vi) 크리스티교 성립 → 세계 종교로 발전★, 아우구스티누스(354 ~ 430)의 『신국론』	